

갓 태어난 우리 아기
우유 안먹고... 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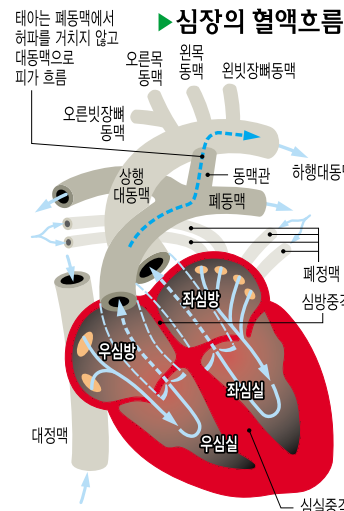
“알고보니 심장병”

“태어난지 20일 만에 포기했던 아들입니다.”

9일 오후 3시경 서울대 어린이병원 5층. 열이틀 전 심장병 수술을 받고 소생한, 생후 2개월난 경호가 엄마 이영숙씨(27·경남 진주시 상봉서동)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씨의 머리 속에서 한 달 전 병원에서 ‘포기각서’를 쓰던 때와 시어머니가 “깃덩이에게 어떻게 칼을 대느냐”고 수술을 말리던 모습이 스쳐지나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9일 제왕절개로 경호를 낳았고 1주 뒤 “아기가 우유를 먹지 않고 몸이 붓는 등 심상치 않다”는 의사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진주의 K대병원을 거쳐 부산 D대병원으로 옮겼지만 의사는 1주일 만에 “뇌혈관까지 터졌으니 2, 3일 밖에 못산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호는 집에서 한 달

오늘 퇴원해요 선천심장병 경호

심장 구멍나 혈액순환 혼란
5시간 수술... “살았다” 안도

을 버렸다. 의사는 “아기의 살려는 의지가 기적을 일으켰다”면서 서울에서 수술받기를 권했다.

경호의 심장은 온갖 심장기형의 집합체였다. 경호의 병을 알려면 심장에서 혈액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아야 한다.

온몸을 둔 더러운 피는 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들어온다. 이 피는 우심실, 폐동맥을 거쳐 허파로 들어간다. 허파에선 혈액의 이산화탄소를 버리고 산소를 담는다. 깨끗해진 피는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을 거쳐 대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흘러간다.

한편 태아는 허파로 숨쉬지 않기 때문에

정맥의 피가 허파를 거치지 않고 심장을 둔 다음 대동맥을 통해 곧바로 온몸으로 나간다. 이때 정맥과 동맥을 연결하는 길이 동맥관. 태어나서 곧 닫힌다(그라픽 참조).

경호는 심방 사이에 큰 구멍이 있어 좌심방으로 들어온 피가 우심방으로 흘러들었다. 이 때문에 오른쪽심장은 커지고 왼쪽심장이 쪼그라든 상태. 폐동맥 혈압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하행대동맥 입구는 막혀 있었고 대신 동맥관은 계속 열려 있는 ‘동맥관 열림증’.

경호는 응급실에서 이틀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6시 수술을 받았다. 수술팀은 경호의 가슴을 열어 상행대동맥과 하행대동맥을 연결하고 심방 사이의 구멍을 메웠다.

오전 11시경 수술실 문이 열렸다. 담당의사는 “수술은 잘 됐는데 아이가 적응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황급히 수술실로 되돌아갔다. 10분 뒤 의사는 다시 나왔다. “살 수 있습니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경호는 5시간 수술 끝에 소중한 생명을 찾았다. 이종승기자

주치의 한마디



흔한 병... 임신부 ‘복부 초음파’ 받아야

선천심장병은 신생아 1000명 가운데 7, 8명에게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병이다. 선천심장병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유전요인에 환경요인이 겹쳐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 요인

은 흡연 약물 공해 바이러스감염 등을 가리킨다. 고령 임신일 때는 심장병이 있는 아기를 낳을 위험이 높아진다. 임신부는 술 담배를 금하고 약은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

다. 결혼 전 풍진 백신을 맞아야 하며 감기 당뇨병 등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선천심장병도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임신부는 반드시 복부초음파를 받아야 한다. 서울대병원에서 수술받은 어린이의 97%가 튼튼하게 지내고 있다. 김용진(서울대병원·소아흉부외과)

메디컬&로

이형혈액 섞으면 혈액형 바뀔수도

하진우씨(25)는 교통사고를 내 다리와 배가 크게 다쳐 응급실에 후송됐다. 병원측은 잠시 후 수혈을 시작했다. 가족들이 혈액봉지를 보니 ‘O’형이 아닌 ‘A’형 피가 하씨에게 들어가고 있었다.

놀란 가족들은 간호사에게 “진우의 혈액형은 O형인데 왜 A형 피가 들어가고 있느냐”고 물었다. 간호사는 혈액검사지 상단에 빨간 도장으로 ‘O형’, 혈액봉지에 ‘A형’이 찍혀있는 것을 확인 뒤 즉시 수혈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다시 우씨의 피를 뽑았다.

얼마 후 간호사는 “좀 전 채혈한 피를 검사해보니 ‘A형’이 틀림없으며 임상병리사가 착각해 ‘O형’으로 도장을 잘못 찍었다”면서 A형을 찍은 혈액검사지를 보여줬다.

간호사는 A형 수혈을 반대하는 가족들을 밖으로 내보냈다. 하씨는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과다출혈사로 사망했다.

가족들은 “혈액형이 다른 피가 들어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병원측은 “첫 번째 검사에서 도장이 잘못 찍혔고 2차 검사에서는 분명 A형으로 나왔다. 과다출혈은 손 쓸 수 없는 복부동맥이 터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하씨의 혈액형이 O형이라는 점만으로는 이형(異型)혈액으로 인한 쇼크사로 볼 수 없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씨 가족의 주장은 맞다. 그러나 하씨 가족은 병원의 실수에 대해 정확한 주장을 폈어야 한다.

이들은 병원측이 O형인 하씨에게 A형을 수혈한 뒤 2차 검사를 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지 못했다. O형 사람에게 A형이 수혈되면 혈액검사서에서 A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www.medcon.co.kr

신현호(의료전문변호사)